

故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故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찍은날 / 2006년 4월 22일

펴낸날 / 2006년 4월 22일

글쓴이 / 육우당

표지그림 / 류이찌

편집인 / 신이, 해와, 장병권

펴낸곳 /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전화 / 02-778-9982 팩스 / 02-775-9983 이메일 / lgbtpride@empal.com

인쇄 / 한울타리 02-924-9641

그의 여섯 친구는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목주였습니다.
그의 일곱 번째 친구는 동성애자 해방세상이길 바랍니다.

故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동성애자인권연대

내림비치

- 간행사
- 서문 -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한다

- 그가 남긴 시 -

- 환생, 하소연
- part 1 그와 행복한 세상
- part 2 녹슨 은반지
- part 3 나비의 푸른 별

- 그가 남긴 기록 -

- part 1 일기
- part 2 유서

- 추모와 연대의 글 -

- 고마운 분들 -

간행사

이 책에는 육우당이 생전에 기록해 두었던 여러 시와 시조 작품들, 일기, 유서 등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는 고 육우당이 청소년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며 느꼈던 솔직담백한 감정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어 했던 수많은 주장과 질문과 비판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육우당은 동성애자임과 동시에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그가 동성애자로서, 그들만의 은밀한 사회에 속해 살아가며 느꼈던 즐거움과 애환과 분노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제도권 교육에서 한걸음 빗겨선 청소년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좌절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공감하고 해석해내는 것은 이제 책을 펼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글들은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한 동성애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로 하여금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든 사회의 억압과 차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힘차게 싸우던 그를 준비 없이 보내야 했기에 우리의 아픔은 더 컸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억압에 맞서 싸우면서도 언제나 잘 웃고, 밝고, 싱그러웠던 그가 왜, 꼭 그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아직 어느 누구도 선불리 짐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육우당을 대하던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과 남은 자의 죄스러움을 천국에 있을 고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이름 한 자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진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자살 소식은 고 육우당의 죽음 이후,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려지던 여러 사연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우당의 글들을 읽으며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다른 동성애자들의 삶과 죽음을 설핏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났고, 더없이 용감했던 우리의 동지.

세상의 어떠한 멸시에도 굴하지 않던 평범한 동성애자, 고 육우당의 삶을 책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내내 기쁘고 영광스런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못한 여건과 어쩔 수 없는 게으름으로 많은 오점을 남기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한편의 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단체와 개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육우당의 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기록을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간 별빛 같은 청년, 육우당에게 다시 정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 2006년 4월에
동성애자인권연대 추모집 편집팀 신이, 해와, 장병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한다.

‘문이 열리지 않아~ 문고리는 돌아가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묵직한 돌덩이가 사무실 문을 가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긴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힘차게 문을 열었던 그 순간, 사무실 문틈 사이로 보였던 소주병과 휴지조각들을 난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예쁜 자주색 체크무늬 남방 끝자락이 문틈으로 보였을 때, 남방이 예쁘다며 그와 수다를 떨었던 전날의 기억이 내 머리를 잠식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현실이 아니길 간절히 빌었다.

그냥 사무실 문 앞에 열리지도 않을 만큼 큰 물건이 떨어져 있기를 기도했다.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지 하느님을 원망했다. 아니 너무나 유치하게도 그동안 내가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며 모든 것이 꿈이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길 바랐다. 30분이 지났을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무실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구경나온 건물 사람들, 급하게 뛰어온 회원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온 경찰관계자들. 문이 열렸다. 마치 보라색 물감으로 온몸을 색칠한 듯한 그의 고개 숙인 모습에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둡고 조그만 사무실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문고리에 목을 맨 그의 열아홉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아직도 사무실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육우당의 편지! 뽀뽀뽀뽀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친구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한다며 힘내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자기도 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전부였다. 난 그 편지를 보며 속으로 ‘이런 기특한 친구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다른 회원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매월 편지로 만원씩 보내주며 인터넷과 메일을 통해서만 소식을 주고받던 그가 2002년 송년의 밤에 처음으로 사무실에 왔다.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분명 기억하는 것은 ‘설현’이라는 닉네임으로 자기를 소개한 것. 찰랑거리는 귀걸이와 화장기어린 얼굴, 곱슬머리에 작은 체구.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유쾌하게 주도하던 그의 밝은 표정이었다. 그는 그렇게 우리와 처음 만났다.

그는 주로 아침에 사무실에 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돛자리만 깔고서도 금방 잠이 들만큼 항상 지쳐있었다.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했다. 그와 만나면 서로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고등학교를 불과 2개월 남겨두고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난 그에게 어머니 잔소리처럼 대학진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는 또 내가 만든 빵을 제일 먼저 시식하고 평가해주기도 했었다. 큰 봉지에 담겨진 페스츄리 빵을 게 눈 감추듯 먹었던 기억이 아련하게 전해온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명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소원처럼 말하던 육우당의 본명을 우리는 여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작은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회가 여전히 동성애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여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익숙하리만큼 잘 알고 있다.

육우당이 세상을 떠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과 인권 문제가 집중 조망되고 있고 육우당의 삶은 언제나 청소년 인권문제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딘 변화이지만 육우당의 사연은 이 땅의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바랐던 것처럼 그의 사연은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다.

2003년은 동성애 운동의 큰 역사로 남을 것이다.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는 사회적 담론을 깨기 위해,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 차별 조

항 식제를 위해 많은 동성애자들은 골방이 아니라 거리로 나섰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집단적인 커밍아웃은 그동안 우리를 지지할 사람들이 있겠냐? 하는 의구심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물론 동성애혐오를 가직 있는 사람들로 부터 욕설도 들어야 했지만 우리들의 자신감을 꺾지는 못했다. 그리고 연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소중한 기독교청년들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육우당의 죽음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우익 단체, 개인들은 동성애자 인권에 노골적인 반감으로 드러났다. 동성애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손가락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운운했던 그들과 달리 같은 종교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나란히 섰다. 평행선으로만 갈 것 같았던 동성애와 기독교, 그 접합지점을 찾는 순간이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육우당이 희망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 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려 노력했고 학교, 상담기관 등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통제받지 않고 주변의 동료들과 가족, 교사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자 청소년들이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추모식에 앞서 육우당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작은 방 한 칸에 육우당이 썼던 책상과 책이 고스란히 놓여있었다. 고인의 유품들 가운데 성모 마리아 상이 자상하게 웃고 있었다. 육우당과 어딘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내내 슬픈 듯한 표정으로 애써 재밌는 농담을 던지시던 어머니는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자 설날 세뱃돈을 주지 못했다는 지갑을 여셨다. 한사코 사양하며 손사래 치는 우리에게 어머니는 만원을 기어코 쥐어 주셨다. 그리고는 결국 아껴두었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그 순간 어머니는 육우당과의 추억을 쏟아내고 계셨다. 끔찍하리만큼 서로를 생각하는母子. 육우당도 유서에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번에 3주기 추모의 밤을 맞아 기획된 추모집 ‘내 혼은 꽃비 되어’ 는 그가 생전에 썼던 일기, 시 그리고 유서를 모았고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편집해 실었다. 육우당은 어쩌면 추모집이 아니라 멋진 시조시인이 되어 시조집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조시집보다 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 추모집은 단지 추모의 의미만을 담는 것이 아니다. 추모를 넘어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성애자의 삶과 눈물을 녹여 내고자 했다. 물론 추모집만으로 세상의 변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추모집을 통해 단 한명이라도 우리 성소수자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 책으로 인해 얻게 될 지지자 한명 한명을 통해, 우리는 좀더 수월하게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발자국들은 고 육우당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있어 매우 커다랗고 거룩하게 빛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을 펴내며, 그 거룩하게 빛나는 발자국들의 의미를 세삼 가슴 속에 굳게 새겨 두고 싶다.

이 책 ‘내 혼은 꽃비 되어’ 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정율,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그가 남긴 시

환생

내 혼은 꽃비 되어 당신 곁에 내리는데

당신은 이런 나를 못 느끼고 계시군요.

임이여! 내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아요.

하소연

세상은 우리들을 훔쳐간 양 혐오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저기 숨어살죠.

하지만 이런 우리들도 사람인걸 아나요.

part 1 그와 행복한 세상

담배

하얀 담배 애절하게 타들어 갈 때마다
근심 또한 뿌우연 연기 따라 사라지네.
한적한 밤하늘 아래 홀로 피는 담배 한개.

심청질책가(沈淸叱責歌)

거칠은 바닷속에 몸 던진 효심청(孝沈淸)아.

효심은 가상타만 그래선 아니 된다.

네 아비 어찌 살라고 금지옥엽 깨느냐.

새타령

새야, 새야 하얗 새야.
목련꽃 같은 하얗 새야.

너의 가느다란 다리를 묶어놓는
검은 쇠고랑을 잘라라

새야, 새야 하얗 새야.
목련꽃 같은 하얗 새야.

너의 요염한 부리를 조이는
검은 밧줄을 끊어라

새야, 새야 하얗 새야.
목련꽃 같은 하얗 새야.

너의 고귀한 몸을 가두는
검은 창살을 부숴라

새야, 새야 하얗 새야.
목련꽃 같은 하얗 새야.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푸른 산을 향해 환희의 소리를 질러라

새야, 새야 하얗 새야.
목련꽃 같은 하얗 새야.

너의 우아한 날개로
푸른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라.

죄 없는 죄수들이 머무는 곳.

머리를 짧게 깎고 숨 막히는 일상생활.

죄 없는 죄수들이 육년 동안 머무는 곳.

규율을 어길 시에는 인권유린 당하네.

몽둥이와 바리깡

남학생

앞머리 3센티 스포츠형의 머리

여학생

귀 밑 5센티 이하 단발머리

교문 앞에는

이 성스러운 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잡기위해

교내 경찰들이

아침부터 수고가 많다.

한손엔 몽둥이

다른 한손엔 바리깡을 들고서.

지각생

언제나 늦게 오는 게으른 지각생아.

이담에 어른 돼서 어떻게 살아갈래.

학생 땐 늦어도 되나 그런 것도 잠시뿐.

알 듯 말 듯

학창시절에는
짧게 깎은 머리와 교복이
그렇게도 싫더니만

지금은 그때가 괜시리 그리워진다.

왜일까.

억압에 하도 시달려서
자유가 부담스러운 걸까.

아니면

세상물정 모르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

나도 모르겠다.

만민평등기원가(萬民平等祈願歌)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다. 귀 따갑게 들어본 말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네.

이천년 전 예수는 만민은 평등하다 말했고, 고려시대 만적은 왕후장상 종자가 따로 없다 말하여 우리는 이점들을 되새기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네. 인종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별의별 차별이 있다네.

세상엔 가짜평등이 설쳐대나 언젠가는 만민평등 천국 같은 세상이 오리라.

이상과 현실의 대화

이상 曰
남녀는 평등해.

현실 曰
뭔 소리여?
남자가 더 높은데.

이상 曰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현실 曰
뭔 소리여?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구만

이상 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현실 曰
뭔 소리여?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데.

이상 曰

사람은 개성이 중요해.

현실 曰

뭘 소리여?

모두 똑같은 색깔 되라고 난리구만.

서러움

왜 이리 서러울까 왜 이리도 서러울까.

멀시 차별 야유 비난 너무나도 서럽구나.

이반은 불가촉천민인 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불공평

이반이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삭막한 사회
이런 사회에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나 같은 이반은
궁합도 볼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지요
그리고
사랑 할 줄은 알지만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이반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반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분의 일

세상의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리고 또
세상의 반에 반은 남자인반 여자인반
그래도 실망은 안 해. 이것만도 어디야.

적지만 사랑만은 더욱 더 큼직하게
꼭꼭 숨어있지만 용케도 찾아낸다.
세상의 사분의 일뿐. 그래도 난 괜찮아.

오세인을 추모하며

날카로운 이 세상은 나약한 오세인을
천리 길 낭떠러지 가운데로 내몰았네.
비운의 청년 오세인 방황하는 저 영혼.

가진 것 모두 잃고 희망마저 잃어버려
급기야 동인련 사무실에 목을 매니
사십만 이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네.

잘 가시오. 편히 눈을 감으시오. 오세인이여,
그 곳에선 이반이라 차별받진 않을 것이오.
오세인, 한 맺힌 청년. 천국으로 가시오.

성적소수자

태초에 인간이란 존재는 쌍으로 붙어있었다. 머리 둘, 팔은 넷, 다리도 넷.

거만한 인간에게 분노한 제우스는 우르르 쿵! 번개를 내리쳐서 쌍으로 붙은 인간을 ‘뚝!’ 하고 떨어져나가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이 되었지. 그 때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됐어. 서로 떨어지게 된 인간은 남은 반쪽을 찾아 이리저리 남녀가 만나게 됐고, 어떤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게 됐지. 그게 바로 우리들. 언제나 그들처럼 존재해 온 우리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들은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들은 분노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머지 반쪽을 찾겠다는데 뭐가 그리 이상해. 우리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너희들과 약간 다를 뿐이지. 정 우리들이 역겹다면 제우스에게 따져. 오랜 세월 박해받아 온 우리들. 이제는 희망을 찾아 무지개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성적소수자. 제우스의 번개로 내 반쪽 찾아다니는 아름다운 방랑자.

비에가(悲哀歌)

가련한 내 신세야 어찌하면 좋을 소냐.

마음에 청옥처럼 시퍼렇게 멎들었네.

일없다 신세타령한들 달라질게 뭐있나

원망가(怨望歌)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뒤흔들지만
허약한 자에게는 꿈도 못 꿀 천봉이니
나 같은 못난이에겐 저 태산이 웬수라.

태풍아

부패한 정치인은 사리사욕 급급하여
나라꼴 엉망진창 국민들의 원성 높네.
태풍아 정치인들을 지옥으로 날리렴.

화란예찬가

북유럽 조그마히 자리 잡은 꿈의 나라.

자유와 평등평화 그곳이 부럽구나.

화란은 희망의 나라 지상천국 이노라.

낙원가

어서오라 어서오라
평화로운 세상이어
어두컴컴 암흑세계
잡아먹고 어서오라

은하수가 흐르듯이
꽃잎타고 흘러오라
평등평화 아름다운
세상이여 어서오라

동성애자 보호받고
장애인도 존중받고
흑인또한 사람대접
받는세상 낙원이여

그런날이 온다면은
모든이가 밤낮없이
덩실덩실 춤을추며
기뻐할 것이다.

돈타령

있는 자 아무개는 세상살이 천국살이
없는 자 아무개는 세상살이 지옥살이
사람은 귀하지 않지 오직 돈이 최고지.

회개 여인

예수를 사랑했던 창녀가 있었다네.

한 많고 설움 많던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나 주님을 뵈 후 성녀품(聖女品)에 올랐네.

타락교회

예전에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개혁했건만 헛고생이라네. 그가 이 꼴을 봤더라면 얼마나 탄식했을까.

목사는 복음말씀 뒷전이요 썩는 눈에 보이는 건 현금뿐이라. 교회확장 눈독 들여 없는 형편에 교회를 짓는 건지 궁전을 짓는 건지. 과거에 성교회가 부패했던 까닭을 아는가 모르는가. 애꿎은 신도들 주머니는 새털처럼 가벼워지네. 어디 그 뿐이라. 우상타파 핑계로 몇 천 년 이어온 조상제사 금지하여 제삿상 얹어버리고 우리민족 상징인 단군 상 목 베어 야만스런 행위를 서슴지 않는구나. 공공장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고막 터져라 외쳐대니 믿으려던 사람마저 등 돌리네.

정말로 맥들이 옳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넉넉잡아 백년 뒤에 봅시다. 누가 과연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는지.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 간다 하기 전에
목사님 행실이나 올바르게 하시지요.
죽어서 무슨 뚫으로 주님 뵈려 하나요.

현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야기

가식적인 십자가를 쥐고
목사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발악하고

만일 우리가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구해 주시겠지

창녀와 앓은뱅이에게
사랑을 베풀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 주시겠지

폭신한 솜이불처럼 따뜻한 사랑을.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비나이다.

어릴 적부터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온 사람이 있으나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는지
세상은 그를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아 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간절히 비오니 다음 세상엔 그의 아내로 환생토록 해주소서.

삼학가(三學歌)

신학은 기록하나 자유를 제한하고

예술은 어여쁘나 이루기 힘이 들고

쾌락은 즐겁고 화려하나 나중에는 서럽도다

이태원에 가면

이태원에 가면 신선한 이태원에 가면

흰나비 검은 나비 노란나비 온갖 나비들이 화려하게 뿔내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네.

젊음과 자유가 넘치는 이태원이 난 좋아라.

이반 목욕탕에서

소년아 몇 살이냐 귀엽구나. 나랑 놀자.
아저씨는 몇 살이세요. 허우대가 멋있네요.
단둘이 방에서 박타는 그 소리가 흥겹다.

원나잇

원나잇
투나잇은 없어
오직 원나잇이야.

투 쓰리 포...
저리 나가
오직 원나잇.

양귀비가 환생한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오르가슴.

원나잇으로
모든 걸 끝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만남은 원나잇.

살얼음판에
등실등실한 엉덩이를 맞대고
원나잇.

이반 정모

가벼운 술 한 잔에 근심 한 근 사라지고
흥겨운 대화에 괴로움도 사라진다.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흘러가는 웃음 밤.

이태원의 밤

화사한 형형색색 물결 같은 네온사인
흥겨운 노랫소리 거리마다 시끌벅적
토요일 이태원의 밤은 태평성대로구나.

어느 이반 바에서

따라라 또 따라라 취하도록 마셔보자.

잊자, 잊자 온갖 설움 온갖 비난 모두 잊자.

우리가 이반이란 이유로 멸시 받은 그 고통을.

이반 살이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이반 살이 어떻소.
말도 마라. 이반 살이 개집 살이 살 떨어진다.
온종일 살얼음 디디듯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부모님은 충격새요. 친구들은 놀림새요.
목사님은 설득새요. 나 혼자만 미운 오리 새끼.
힘겨운 하루하루가 아수라의 귀신같구나.

형님, 형님 어찌겠소. 우리 팔자 다 그렇지.
종로에서 술이라도 한잔 하십시오.
그러자. 오랜만에 잔뜩 취해나 보자꾸나.

근심가

평범한 삶이라도 근심은 태산 같아
오만상 찌푸린 채 야월을 보았지만
저 달은 아무 말 없이 비추기만 하네요.

고(苦)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너무나도.

주위에선 날 억지로 미는군요. 너무나도.

압박감. 내 편은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조울증

웃음 뒤엔 슬픔이 기다리고, 또 다시
슬픔 뒤엔 웃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번갈아 나를 놀리는 너희들은 누구냐.

미련 없이

천사들이 오고 있다.
어떡할까 맞이할까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라고 타일러 보낼까

아,
미련 둘 게 뭐 있겠나만
단지 한스러운 건
고통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어떡할까

그래!
천사들을 맞이하자
그저 편안하게
날개 달고 훌쩍

천상으로 가야지.

空

살랑 사랑 부는 바람
그 바람 가운데의
텅 빈 공간.

공기도 없는 무중력의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無의 세계.

빈자리 나의 빈자리
영혼이 편히 숨쉴 나의 빈자리.

바람 가운데에 있는
텅 빈곳.

空

.....

空

.....

내가 가야할 곳.

극락길

흐르는 물 따라 내 영혼도 흐르네.

이 길 따라 흘러가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

한 많은 내 영혼이여 연꽃타고 쉬어가렴.

part 2 녹슨 은반지

당신을 향한 내 마음

노오란 달빛 아래 은은한 연꽃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향긋한 꽃잎처럼
내 맘도 당신을 향해 꾸밈없이 다가서죠.

소년의 모습으로

순진한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 짓고
차가운 당신 마음 녹여주고 싶어요.
소년의 그 모습으로 따스함을 드릴게요.

기다림

뽀얗게 분칠하고 당신 오길 기다려요.

어여쁘게 차려 입고 당신이 오기만을.

하지만 기다림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네요.

지옥꽃

지옥불 그 속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타지도 메마르지도 않는 신비함.

저 꽃을 살며시 따다가 내게 줄 분은 없을까.

사랑을 뿌려드릴게요.

바람타고 날아갈까 구름타고 날아갈까.

나비 같은 모습으로 우아하게 날아가서

소중히 간직한 사랑을 살짝 뿌려 드릴게요.

병어리 사랑

“사랑해요”

이 한마디조차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죠. 아니, 해선 안돼요.

다가서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아니, 그래선 안돼요.

언제나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빌듯이....

이것이 내 운명인가 봐요.

망설임

사랑하나 다가서지 못하는 이 내 설움
멀리서 바라보며 고운 입술 병긋병긋.
하늘은 야속하게도 날 이반으로 나셨네.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두고

내일이면 어느덧
발렌타인 데이구나

널 위해 몇 달간 아껴둔
용돈으로 산 고급 초콜릿

하지만 망설여져
이걸 너한테 줄 수 있을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지
이상한 인간들, 흥측스럽다고 말야.

그래도 난 네게 줄 거야.
이 초콜릿은 널 향한 내 맘이니까.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매일 매일 당신의 품에 안기는 것.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당신의 품

딱 떨어진 당신 가슴에 얼굴을 기대니
듬직한 향기가 내게만 느껴지네.
그 어떤 꽃향기보다 당신 품이 더 향긋해요.

단 둘이라면

당신과 단 둘이라면 캄캄한 밤조차도
양들이 풀 뜯는 평화로운 초원 같고
풍성한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듯 하죠.

당신의 체온

당신과 보드라운 둔부를 맞댄다면
차가운 얼음마저 사르르 녹게 되죠.
당신의 따스한 체온으로 나를 녹여 주세요.

그대여

꽃밭에 한가로이 노니는 나비처럼

나 또한 당신 품에 묻히어 노닐지요.

그대여, 내겐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져요.

무제 I

우리의 사랑도 다른 이의 사랑처럼
냥만과 숭고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비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무제Ⅱ

임 있는 곳이라면 만리길도 마다않고
임 가는 길이라면 저승길도 갈 수 있네.
어디든 상관없으니 임 곁이면 만사 좋구나.

밤잠을 못 이루고

쓸쓸한 가을에는 군대 간 형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형 또한 내 생각나서 잠 못 이루고 있겠죠.

당신은

당신은 내 맘조차 몰라주는 그런 사람.

원망도 아쉬움도 많지만 하는 수 없죠.

하지만 그런 당신이 보고 싶은 건 왜일까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와라 고운날개 펼쳐이며.
색색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훨 날아
그리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다오.

그리움

날 두고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온종일 님 얼굴이 그리워 일 안 되네.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난다면 좋으련만.

바람을 끌어안고

모질게 시릿한 찬 바람을 끌어안고
보고픈 사랑을 독수공방 기다리네.
그리운 그 분께서는 날 잊지나 않았을까.

사모가(思慕歌)

밤하늘 바라보며 전전반측 님의 생각.
하지만 저 하늘은 무심케도 날 버렸나.
간절히 기도했건만 님을 볼 수 없네요.

이별조건

모래사막 가운데에
소박한 연꽃이 피는 날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밤하늘 달이
두개가 되었을 때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이 땅에 요순임금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금송아지가 살아 숨쉬며
들판의 풀을 뜯어먹을 때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런 날은 아마도 오지 않겠지요?

기쁜 이별

소리 없이 내게 왔던 슬픔 같은 그대여.
이제는 살며시 나 모르게 떠나가네요.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부디 행복 하세요.

사랑을 고이 접어

목련꽃 향기처럼 은은한 우리 사랑.

이 사랑을 고이 접어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언젠가 다시 오시거든 조심스레 드리도록.

체념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활짝 열고
밤하늘 향기에 잔뜩 취해 황홀하니
당신과 헤어진 쓰라림이 조금씩 날아가요.

회상

밤하늘 달을 보며 당신을 떠올려요.
언제나 저 달처럼 환하게 웃던 당신.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죠.

녹슨 은반지

녹이 슨 은반지를 조심스레 끼어보니
이것을 내게 줬던 당신 얼굴이 떠올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어떡해야 하나요.

part 3 나비의 푸른 별

꽃의 속삭임

다친 날개 감싸며 방황하는 나비야.
포근한 꽃잎에서 쉬었다 가려무나.
시간은 많고 많은데 서두르게 무어니.

나무야

나무야 곧은 기둥 듚적하다 자랑마라.
풍채는 건장하나 갈대만도 못하구나.
차라리 꺾여짐보단 휘어진들 어떠리.

나뭇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가냘픈 나뭇가지
윙윙윙 모진 바람 세차게 불건마는
쫘쫘이 제 위치만은 지키니 아름답다.

노을

하늘과 땅을 듯한 먼 산 위로 퍼진 노을.

황적색 물감으로 문지른 듯 불그스름.

하지만 시간이 흘러 먼 산 뒤로 숨누나.

오염수

푸르던 가람 빛이 이제는 거무죽죽.
질식해 죽은 고기 가람위에 뚱뚱 뜨네.
슬프다 깨끗한 물은 언제쯤에 보려나.

시골소년

발그텅텅 두 볼이 귀여운 소년이
발가벗고 시원한 냇물에 찜뽕찜뽕.
순수한 시골소년의 그 모습이 부러워요.

비둘기

청산의 비둘기는 구름 같은 방랑자.
하늘로 날아갔다 이따금씩 돌아오네.
새하얀 고운날개가 하염없이 부럽구나.

꽃

따스한 봄이오니 꽃들이 만발하다.

요염한 진달래, 귀여운 개나리, 아기자기 벚꽃, 도도한 목련꽃.

영원히 그 모습을 간직 할 수 있었으면.

나뭇잎

넷물에 동동 떠 흘러가는 나뭇잎아.
신선한 네 푸름에 내 근심을 모두 싣고
바다로 흘러가거든 돌아오지 말아라.

故 六友堂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詩作들을 접하며

글 _ 해와

물론 고인이 프로 시인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을 읽고 간추리는 과정에 서 분명히 미숙한 작품들을 다소간 마주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이 책에 실린 시들이 문학적으로 매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다. 그래, 사실상, 이 책은 아마추어의 작품을 엮은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 속에는 공연히 느껴지는 미덕이 있다. 그 미덕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작품들을 바라보기를 권유한다. 편집을 하는 내내, 고인의 시들에 배어있는 특유의 아우라에 심취되어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적어도 그는 솔직한 시를 쓰고 있었다. 이것은 시인의 기본이다.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프로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미 프로 시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작품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자. 그의 작품들에 깃들어 있는 솔직한 매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시를 통해 우리에게 절실히 말을 걸고자 했다. 솔직하고 진실 되게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가장 솔직한 제스처가 바로 시였던 것이다. 고인이 프로 시인이 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그의 혼은 꽃비가 되어 내리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다.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그가 환생하여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Part1의 시들은 육우당의 일상생활과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을 골라

뭍은 것이다. 〈담배〉라는 제목의 시가 제일 앞에 실린 것은 육우당의 기본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이 한줄기 담배연기처럼 허무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쓰럽고 마음에 걸렸다.

두 번째로 실은 시는 〈심청질책가〉이다.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에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된다’ 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시는 먼저 간 시인의 상황과 대비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몽둥이와 바리깡〉 〈죄 없는 죄수들이 머무는 곳〉 〈지각생〉, 등의 시들은 시인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이다. 억압적인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녹아 있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고인이 그 시절의 나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평범하고 건강한 친구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시인은 정치적인 문제와 인권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상당량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그의 관심이 단지 이반으로서 겪는 차별에 국한 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대해 거부하는 포괄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룬 〈태풍아〉나 〈둔타령〉같은 작품의 경우, 순수한 소년의 시선이 잘 묻어나면서 동시에 해학적이기도 해서 읽는 이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향의 작품들 중 가장 흥미로운 작품은 바로 〈화란에찬가〉이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를 찬미한 이 노래에는 시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모두 함축되어있다. 그는 이반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뿐 아니라 모든 복지가 더없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 나라를 지상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에 나타난 지상천국 화란은 비록 실제의 네덜란드와는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 하다. 작품에 드러난 화란은 실제의 네덜란드라기보다는 시인이 가고자 했던 이상향에 좀더 가깝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면하고 싶었던 고인의 천진난만한 마음이 만들어진 상상의 나라가 바로 화란인 것이다.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의 작품세계의 한 귀퉁이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적인 시들이다. 다소 노골적인 신앙고백을 담은 시들을 제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만 모아 놓고 보니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매우 두드러진 시 몇 편만이 남게 되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아픈 말들일 수도 있겠지만 시인의 솔직한 심경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아 반드시 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기도〉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생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그 사람의 아내로 태어나게 해 달라’ 는 소원을 노래한 이 작품은 그렇게 독실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느님이 아니고 부처님인가’ 를 생각해보면 살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어린 시인의 또 다른 키워드는 주저할 것 없이 “이반” 이다. 이반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봤던 세상, 이반 바에서 만난 다른 이반들의 모습, 이반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등이 투영된 이 시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다. 암울하고도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반들의 모습, 때로는 사회 일반적 도덕률에서 일탈된 이반들의 모습까지도 시인은 결코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매우 경쾌하게 그리고 있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쓰다듬고 있다. 그들과의 동지애를 한껏 느끼면서 자기 자신 또한 힘껏 끌어안고 있음을 이 작품들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끝으로, 시〈극락길〉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치 시인은 예언이라도 한 듯이 〈극락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놓고 있었다. 날짜를 보아하니 아주 오래 전에 쓴 것이었다. 본인의 한 많은 영혼이 연꽃타고 흘러가 극락에 이르기를 빌고 있는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저리듯이 아파왔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영혼이 연꽃에 실려 극락에 이르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Part2는 고인이 남긴 사랑을 주제로 한 詩作들을 사랑의 과정 순으로 엮어 보았다. 더욱이 자신을 나비에 빗대어 표현한 시들이 유난히 많았기에 번데기에서부터 나비로 탄생하기의 과정에 비추어 두 번째 파트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랑에 대한 시인의 마음은 천진난만 그 자체이다. 작품의 면면에 소년의 마음

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듯이 드러낸다. 그 기다림은 번데기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아련한 기다림이 언젠가 끝나면,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작품 곳곳에서 배어 나온다. 때로는 그 기다림에 지친 것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번데기가 언젠가 성체가 되듯이 결국 그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만난 시인은 ‘나비가 된 행복감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외롭고 힘겨웠던 그의 삶에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낭만적이고 숭고한 자신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은 그가 받아들이기에 많이 힘겨웠을 것이다. 그가 느꼈을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바로 그러한 실망감을 바탕의 정서로 이해하여, 다소 비장한 각오로 ‘사랑하는 이와 저승까지 함께 가겠다.’고 표현한 작품을 보고 있다면 쓸쓸한 기분을 지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사랑의 끝이 언제나 그렇듯이 시인도 이별을 경험한다. 시인이 풀어 놓은 이별에 대한 작품들은 그 나이 때의 소년들의 감성과는 사뭇 다른 것을 담고 있다. 한없이 원망할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시인은 이별한 연인의 행복을 빌어주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두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창문 밖 밤공기에 이별의 답답한 심정을 실어 보내다가도, 연인이 주었던 녹슨 은반지를 끼어보고는 못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섬세한 감성은 자못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Part3의 작품들은 시인이 사랑했던 자연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시 〈꽃의 속삭임〉에 드러난 정서가 아마도 시인이 생각하는 자연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한다. 어김없이 나비로 자신을 은유한 이 시에서는 꽃으로 대면되는 자연이 나비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일상에 지친 시인이 자연에서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시인의 유작들 중 자연만을 찬미한 노래가 꽤 많은 것으로 보

아 시인이 자연에게서 얻는 편안함이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 자연은 단지 휴식을 제공하는 놀이터이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연은 시인이 쉴 수 있는 쉼터이자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선생님이기도 하다. 〈꽃의 속삭임〉에서의 꽃은 나비에게 서두르지 않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나무야〉같은 시에 등장한 나무는 유연한 삶의 자세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는다. 또한, 시 〈나뭇가지〉의 나뭇가지는 꺾꽂이 건뎌내는 절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시 〈오염수〉에는 그러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기도 하며, 〈시골소년〉 〈비둘기〉같은 시들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한 순진한 동경이 드러나고 있기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시인은 자연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을 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들을 가만히 읽어보고 있자면 그의 순수한 시선에 비친 생각들에서 의외로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도 갖게 된다. 그런 순수한 생각들을 배경으로, 시인은 자신의 시 〈나뭇잎〉에 ‘자연과 함께 걱정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부디 시인이 바랐던 것처럼, 이승에서 가졌던 걱정근심을 모두 나뭇잎에 실어 바다로 흘러보내고 천국에서는 행복하기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가 남긴 기록

part 1 일기

2002. 10. 08. 화

오후에 아버지와 성모자애병원 신경정신과에 갔다.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부적응 때문이다. 나는 이성애자 기피, 아버지에 대한 증오, 조울증, 단체생활 혐오…… 기타의 이유로 예전부터 신경정신과에 가보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는데 최근에도 가출 후 학교를 계속 나가지 않아서 급기야 이렇게 병원에 간 것이다.

담당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성애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신 건가요?” 라고 했다. 의사 말이 맞다. 난 이성애자가 될 수 없을뿐더러 되고 싶지도 않다. 간단히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다. 내일은 9시 30분까지 또 병원에 가야한다. 심리검사는 2시간 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난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왼손잡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길이 있으면 저런 길도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걷는다면 난 단지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이다.

2002. 10. 25. 금

우리나라엔 현재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석천이 커밍아웃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게이? 우리나라에도 게이가 있나? 태국 같은 나라에만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홍석천이 커밍아웃 한 후엔 ‘아, 우리나라에도 게이가 있구나. 그런데 게이는 다 저런가보다’ 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우리나라엔 동성애자들이 있긴 해도 아주 극소수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은 자기 주변에 늘 동성애자가 있다는 걸 못 느낀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반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가고 있다. 나름대로 게이문화, 레즈비언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고. 아마도 내가 죽은 후엔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반을 인간 대접해주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J는 요즘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어 무척이나 힘들겠지? J는 내겐 단 하나뿐인 이성애자 죽마고우이다. 중 1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왔다. 내가 인천으로 이사 온 지 벌써 4년이 됐지만 방학 때마다 서로 만나서 어른들 몰래 술도 마신다. 몇 달 전 정수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정수는 꽤 충격을 받았었다. 난 그때 ‘죽마고우를 잃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히 정수는 날 이해해줬다. 현재, 이성애자를 기피하는 증상이 있지만 정수만큼은 내게 둘도 없는 친구다. 하나뿐인 이성애자 친구다.

1)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異般)'이라고 칭하곤 한다.

2003. 03. 24. 월

서점에 가서 9급 공무원 시험에 관한 책을 샀다. 1년 이상 공부해서 내년에 시험 볼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할 땐 공무원이 최고다. 비록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니까.

내 카페 화랑의 회원 수가 무려 1200명을 넘어섰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싫어서 오늘부터 카페폐쇄 작업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이 카페를 폐쇄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그에게 주인권한을 넘겼다. 그리고 난 뒷방식으로 물러나 운영자가 됐다.

2003. 03. 26. 수

동인런 사이트에 나도 동인런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올렸다. ‘물론이지. 언제라도 환영이야’ 라고 답 글이 달렸다. 아, 다행이다.

2003. 04. 01. 화

아, 동인련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달에 드는 돈이 40만원 정도인데 후원금이 겨우 20만원이라니. 선수바에서 기본으로 드는 돈이 20만원이다. 선수바 다니는 아저씨들이 한번만 안가고 그 돈을 동인련에 후원하면 동인련은 훨씬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구의 어머니인 광낙원은 찬거리를 줄여 군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이를 본받아 난 이천원 짜리 담배대신 천 오백원짜리 담배를 피, 남은 돈 오백원을 모아 동인련 후원금으로 낼 생각이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날이 오기 위해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3. 04. 02. 수

초등학교 6학년 때 안네의 일기를 읽었는데 그 땐 문득 이상하게 여겨졌어. 안네가 말하는 ‘키티’란 대체 누굴까 하고, 나중에 키티는 안네가 생각하는 가상의 친구라는 걸 안 난 안네가 혹시 정신병자는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 하지만 오늘에서야 키티가 누구인지 깨달았단다. 바로 키티는 안네 자기 자신이라는 걸. ‘또 다른 나’에게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 일기를 쓰는 나(안네)와 그 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나(키티).

그래서 오늘부터 나도 ‘또 다른 나’와 대화를 시작하려 해. 그저 나 혼자 쓰는 일기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체 일기’를 쓰겠다는 애기지. 난 너를 ‘이아(異我)’라고 부를게.

2003. 04. 03. 목

이아야. 오늘 결심했어. 난 병역거부를 할 거야. 난 살인무기인 총을 잡지 않을 권리와 전쟁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성애자 기피증’ , ‘단체 생활 부적응’ 이란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일은 또 종묘공원에서 파병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야. 난 요새 보람을 느껴. 그 동안은 이반들을 만나봤자 매일 술 마시면서 2식성 얘기나 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섹스하고…… 이런 무의미한 것만 했었는데 동인련에서 일하면서 나도 이 사회를 위해 뭔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전시위, 파병반대시위 때 동인련 사람들과 무지개깃발을 세우고 ‘동성애자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내일은 또 시위를 해야 돼. 그럼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피곤해서 그만 쓸게. 그럼 잘 자.

2)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성적 혹은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상형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2003. 04. 04. 금

이아야. 요 며칠 새 몸이 너무 피곤해. 잤은 시위와 그 동안 밤에 생활하다가 갑자기 낮에 생활하니까 몸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또 시위를 했어.

오늘 집회는 당국에서 불허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애당초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다들 신분증을 놓고 왔지. (신분증이 있으면 연행될 확률이 높거든.)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경찰들과의 충돌이 장난 아니었던단다. 수백 명의 경찰들이 둥그렇게 공원자재를 포위해서 집회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지. 그 와중에 수많은 집회자들이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단다. 어떤 사람은 살이 찢어지다 못해 뼈가 드러나기까지 했어.

세상에! 너무 잔인하지 않니? 대체 이 나라의 경찰들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더구나. 다행히 나와 일행들은 경찰들 틈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은 명동성당에 가서 ‘제2차 집회’를 한 후 밤 8시쯤 해산했단다.

그리고 밤에 오랜만에 M과 술을 먹었어. M은 나더러, 뭐 하러 월급도 안주는 그런 곳에서 일하냐고 하더라. 하지만 난 동인련에서 일하는 게 좋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거든.

2003. 04. 05. 토

난 이아 널 알게 된 후로 일기 쓰는 게 즐거워졌어. 쓸쓸하지도 않고. 내 호가 왜 육우당(六友堂) 인지 아니?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목주 이 여섯 가지가 내 친구이기 때문이란단.

이아야. 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측천무후는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도 80살 넘어 죽었고, 프랑스의 천재시인이자 소설가인 라디게는 겨우 스무 살에 죽었지. 허난설헌은 26살에, 사다함은 17살에 죽었고 말야. 사람의 목숨이란 게 참 신기하지. 운명을 알 수 없으니까. 난 몇 살 쯤 죽을 것 같니? 정말 궁금해.

2003. 04. 08. 화

나의 반쪽 이야야. 오늘 아침 일찍 동대문에서 J누나를 만났단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대규모 파병철회 집회 때 쓸 매우 커다란 무지개를 만들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지. 밤 늦게가 되어서야 겨우 다 만들었어.

그나저나 큰일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하는 걸 강력히 반대했거든. 물론 예상은 했지만 한기총이 워낙 세력이 강해서 잘못하다가는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물에서 삭제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기분 나쁜 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자들을 마치 죽어서 지옥에나 갈 흉악한 무리인 듯 성명서를 썼다는 점이야. 정말이지 짜증나. 예수님은 분명,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고귀한 인권을 유린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하느님인양 설치대니까 말야.

중세 유럽 때 성경에 조금만 위배되는 사람은 모두 악마로 몰아붙여 화형 시켰지. 유대인, 원손잡이, 자위행위를 한 자, 동성애자는 모두 악마로 간주됐어.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유대인과 원손잡이를 악마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겠지. 근데 왜 동성애자는 아직까지도 ‘악마’ 라고 여기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무려 500년 이상이나 뒤쳐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웃기지 않니?

2003. 04. 09. 수

이아야. 내가 죽기 전에 ‘동성애 해방’ 을 볼 수 있을까?

아마도 못 보겠지? 하지만 난 실망하지 않아. 비록 내가 살아생전에 동성애 해방을 볼 수 없다고 해도 후손들이 지금처럼 괴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기뻐. 다음 세대의 이반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선 동성애자인권운동가들의 고생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괜찮아. 동성애 해방이 온다면야.

과거 독립 운동가들은 조국 해방을 꿈꾸듯 지금의 동성애자 운동가들은 동성애 해방을 꿈꾼단다.

2003. 04. 10. 목

이아야. 난 오늘부터 내 여섯 친구 중 하나인 ‘묵주’와 절교하고, 대신 ‘엑세서리’를 새 친구로 만들었어. 이 말은 곧 가톨릭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겠다는 뜻이지. 바로 ‘도교’야. 오늘부터 나는 장자를 섬기며 도교인이 됐거든. 장자의 말씀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내 영혼을 오아시스를 만난 듯 새롭게 일깨워 줬거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장자의 말씀은 내게 귀감이 됐단다.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엑세서리는 내게 황홀함과 우울함을 동시에 안겨주지. 친구란 바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해. 어느 게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난 생각해. 그건 단지 느낌일 뿐이거든. 이성애냐 동성애냐를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느낌이 끌렸을 뿐인데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니.

2004. 04. 12. 토

이아야. 오늘 시청에서 또 시위를 했어. 하지만 또 짜증나는 경찰들 때문에 평화행진을 못했단다. 정말 열 받아. 그리고 다시 가톨릭을 믿기로 했어. 난 가톨릭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 여러 번 비교 했지만 얼마 못가 다시 가톨릭 신자가 됐지. 하느님의 뜻일까?

어쨌든 난 회개의 기도와 묵주기도를 했어.

2003. 04. 13. 일

내 반쪽 이아야. 오늘은 성당에서 십자가와 성모마리아상을 사왔단다. 내일 동인련 사무실에 갖다 놓으려고. 동인련이야말로 하느님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 분명 하느님께서는 동인련을 도와 주실거야. 난 믿어.

남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언정, 하느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닐 테니까.

2003. 04. 14. 월

오늘 저녁에 동국대에서 ‘동성애와 기독교’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단다. 저마다 생각을 말했는데 대부분 현재의 성경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하느님을 믿지 않고 환락적인 생활과 우상숭배를 해서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건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였지. 남들은 돌로 쳐죽여야 한다고 했을지언정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고 하셨어. 그 만큼 소외당한 자를 감싸주신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질책할리 없다고 생각해.

2003. 04. 15. 화

이아야. 요즘 난 너무 외로워. I형도 별로 연락이 없고. 동인련에 출퇴근 하다 보니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 혼자 침대에서 잘 때면 남자 품이 정말 그리워진단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할까?

참, 그리고 앞으로 시조 외에도 가사를 써 볼 생각이야.

2003. 04. 17. 목

또 다른 나인 이아야. 오늘 ‘가사부활회’란 카페를 만들었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부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아, 봄이 돼서 꽃향기 그윽하고 황홀한데 왜 이렇게 울적한지 모르겠구나. 요즘은 밤에 외로워서 미치겠어. 아, 나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어. 예고…… 괜히 하소연만 한 듯싶구나. 이아야, 난 아무래도 22살을 못 넘긴 채 죽을 것 같아. 그럼 어찌지? 누가 너랑 대화를 할까. 나 죽으면 너랑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2003. 04. 18. 금

이아야. 난 매일 묵주기도를 해. 동성애자들이 멸시받지 않는 세상, 시조와 가사가 우리 민족의 전통 시로써 널리 보급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말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감스럽게도 기도밖에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난 믿어.

2003. 04. 19. 토

그저께부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 클레오파트라처럼 코브라에 물려 죽는 게 최고겠지만 내가 코브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까 해봤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청산가리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드물어서 말야. 목매달아 죽으면 고통도 별로 없고 오르가즘마저 느낀다지만 목매단 시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 보인더군.

이아야. 그래서 결심한 건 동맥을 그어 자살하기야. 죽은 후의 모습도 그다지 추하지 않고 고통도 덜하대. 게다가 몽롱한 기분이 들어 잠자듯이 죽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난 이 방법을 택했어. 물론 오늘 당장 죽겠다는 건 아니야. 이 세상에 살고 싶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을 때 그때 죽을 거야.

2003. 04. 20. 일

이아야. 나 결심했어. 목매달아 죽을 거야. (물론 지금은 아니고……) 장난삼아 문고리에 목을 살짝 매달았는데, 숨이 막히긴 해도 목이 조여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말 환상적인 느낌이 들더라. 너무 짜릿하고 황홀했어. 딸딸이 치는 것보다도 더 황홀하더라. 동맥 끊으면 피가 심하게 많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 청산가리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난 이렇게나 짜릿하고 기분 좋은 방법으로 죽을 거야.

뭘, 죽은 뒤의 시신은 엄청 추하겠지만 상관없어. 죽으면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되돌아 갈 텐데.

난 요즘 너무 허무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야. 꿈을 상실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래.

웬지 이성애자들과는 나 스스로 ‘벽’을 만드는 것 같아. 마치 ‘저 사람은 내가 게이인걸 알면 날 혐오스러워 할 거다. 지금은 내게 잘해줄지언정 내가 게이란 사실을 알면 안 된다. 즉, 난 게이처럼 보이지 않도록 억지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이야.

에휴 젠장! 남들은 다 아무 탈 없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난 왜 이런 건지. 나 자신이 한없이 또라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게다가 요즘은 성정체성마저 흔들려. 내가 게이인건지 3)트랜스젠더인건지 분간이 잘 안 돼. 그래도…… 난 게이일거야.

3) 게이(gay)는 자신이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긍정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과 스스로를 인식하고 추구해 나가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2003. 04. 22. 화

몸이 아파서 동인련 사무실에 못 갔어. 어제 수면제를 네 알이나 먹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리고 어제 목조르기를 했는데 너무 무리했는지 오늘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아파.

이아야, 아마도 난 살아생전에 시집을 출판하지는 못하겠지? 오늘 낮에 나라원 출판사에 원고응모를 했는데 채택될 지 의문이야. 에휴. 죽기 전에 그래도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는데 잘 안될 것 같다.

이제 이반을 만나는 것도 지겨워. 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그저 섹스만을 원하지. 난 키가 작고 말랐고, 얼굴이 좀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 눈으로 볼 땐 전혀 성적인 매력이 없어.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볼 땐 그렇지 않은가봐. 특히 30대 이상인 남자들 눈에는.

2003. 04. 23. 수

이아야, 다모임에 가보니 다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더구나. 대학생생활을 하는 애들도 있고 재수 생활하는 애들도 있는데 모두들 밝은 모습이었어. 난 개네들이 졸업하고 알바 하다가 대학입학 할 때, 술 팔고 있었지. 애들이 대학 생활하는 지금에는 동인원에서 일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꿈과 목표를 상실했다고나 할까.

이성애자 기괴현상 때문에 다른 일은 정말 못하겠어. 차라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난 어떡해야하지?

난 죽더라도 추한 모습은 안보일거야. 늘 그랬듯이 깔끔하고 우아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그래서 죽을 땐 얼굴에 분칠하고 고운 한복입고 촛불 켜고 묵주기도를 할 거야.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으려고 말이야.

이아야. 결심했어. 모레 밤에 난 죽을 거야. 너랑 대화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지만 괜찮아. 넌 '또 다른 나' 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한 이아, 너도 존재할 테니까.

모레에 죽을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 허전하기도 해. 지하철을 타도 창 밖 풍경을 감상하게 되더라. 뭐, 씹스러운 사회이긴 해도 마지막으로 쉼 둘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아, 그래도 한편으론 홀가분해. 모레면 난 영원히 잠들 테니까. 슬픔 · 분노 ·

짜증·억울함……. 이런 걸 안 느껴도 되잖아.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일 가족 외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면 난 인생 헛산거겠지. 뭐 아무래도 좋아.

내가 설현이란 이름으로 술한 이반을 만나고 다녔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는 구나. 이아야, 그땐 별의별 남자들과 쾌락을 즐겼단다. 설현이란 이름이 하도 팔려서 모두들 날 벽차고 요사스럽고

4)끼스러운 5)마짜넌이라고 했지. 그럼 난 이렇게 대꾸했어. “서로 좇 빨고 사는 처지에 남 욕하고 사냐!” 라고. 좀 천박하지?

4) 종종 여성스런 행동과 말투를 드러내는 게이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남성동성애자들만의 은어이다.

5)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역할을 구분하고자 할 때 여성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때짜이다.

2003. 04. 24. 목

이아야, 그래도 짧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육상대회도 나가고, 가출해서 많은 것도 보고, 수도원에서 성스러운 생활도 하고, 국악대회도 나가보고, 중국여행도 해보고,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신경정신과도 가보고, 연극도 해보고, 게이바에서 화류생활도 하고, 한 달도 안됐지만 동성애자 인권단체에서 일도 해보고, 반전시위도 하고 …… 의미 없이 헛되게만 산 것 같진 않구나.

단지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동성애자를 악마 취급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득실댄다는 점이야. 난 죽은 뒤 빨리 동성애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교황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어.

2003. 04. 25. 금

내 반쪽 이아야. 안녕.

난 지금 동인련 사무실에 혼자 있어.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재밌게 떠들었지만 다들 지금은 나가고 없어. 지금시간 밤8시. 좀 있으면 난 이세상과 영영 Bye, Bye야. 그래도 너랑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구나.

지금 영화 시카고 OST를 들으며 검은 하늘을 바라봤어. 저 검은 하늘 ……
내가 이 세상에 미련 둘 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차 하늘과도 인사해야겠지. 땅과는 작별인사를, 하늘과는 만남의 인사를.

이아야, 너랑 일기로 대화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난 죽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움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분칠도 더 진하게 하고 귀고리도 신라왕실 분위기가 나는 금귀고리를 했다. 한복도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도 죽은 시신은 흥해보이겠지? 그것도 목매달아 죽은 시신은 더더욱… 에휴.

그나저나 엄마가 걱정이다. 큰 불효를 저질렀으니.
하지만 난 더 이상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고통도 멸시도 비난도 가난도 폭력도 없는 세계로 가고 싶어. 내가 없더라도 동인련은 잘 운영될 거야. 지금은 작은 단체이지만 훗날 큰 단체가 되길 바래. 그런 의미에서 유서에 내 전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써놨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이아야, 회한해. 얼마 후면 죽을 건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평상시랑 똑같아. 보통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떠나는 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 잡념도 생기고 시도 많이 쓰게 됐는데 오늘은 안 그래.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나한테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도 말이야.

part 2 유저

유언장

내 전 재산을 동성애자 인권연대(동인련)에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적금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또한 동인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저 죽은 뒤 제 어머니께서 동인련에 후원금을 매달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편히 눈감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인련에서 내 일기(육우당 일기)와 시조집(육우당 시조집)과 가사와 여러 편의 시와 공책(육우당 잡서)을 간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가사’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 ‘가사’가 문학적 가치는 없어도 가사부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비규환인 것 같습니다. 술·담배·수면제·파운데이션·녹차·묵주·이 여섯 가지가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육우당(六友堂)’이죠. 내 세 가지 소원은 ①동성애자 해방 ②시조 부흥 ③가사 부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 소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전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허무함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끔은 동성애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기도 했구요. 이 나라가 싫고 이 세상이 싫습니다. 이성애자 기피증도 년덜머리나구요.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는 내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해주세요. 난 천주교를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부디 편하게 지내세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인련(동성애자인권연대)에 엄마가 후원해주셨으면 해요. 동성애자 인권이 향상되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을 테죠.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 멸시받아서 안돼요.

동인련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믿어요. 매일 동성애자 해방과 시조부흥과 이미 사라진 ‘가사’가 부활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묵주기도를 드렸는데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으면 해요. 사무실에 있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은 그대로 놔두세요. 하느님께서 동인련에 축복을 내려 주실 테니.

한국의 동성애자들에게

언젠가는 ……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난 이승에서 사는 게 싫어서 이렇게 떠나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보람되게 사세요. 난 여러분들이 유희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녀’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에휴, 죽을 사람이 된 할 말이 이리도 많은지……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죽은 걸 비난할 사람이 있을 것이란 추측 때문입니다.

더러운 호모세끼 그래 잘 죽었다……

애미 가슴에 못질하는 불효자……

낙오자, 못 난놈…… 목숨을 꿔다니……

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날 비난하기 전에 이 썩스러운 사회를 먼저 비난하십시오. 당신네들이나 처신 똑바로 하고 나서 날 비난하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지요.

난 그저 편히 쉬고 싶습니다. 동인련 식구들……

다들 수고하세요. 나 먼저 갈게요. 형, 누나들의 수고가 다음세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동안 즐거웠어요.

아, 훌가분해요. 죽은 뒤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은 동성애자다’ 라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인해, 고통 받지도 않아요.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나 죽은 게 아깝지 않다고 봐요. 물지각한 편견과 씹스러운 사회가 한 사람을 아니, 수많은 성적소수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반 성격적 반 인류적인지

우리더러 죄인이라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나 먼저 회개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해야 할 거예요. (물론 내가 저세상으로 가려는 큰 이유는 우울증과 허무함이지만요. 이 사회도 싫고 아비규환 아수라장 그 자체)

2003. 4. 24 (목)

추모와 연대의 글

- 인권단체 공동성명 -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윤씨의 곁에는 여러 장의 유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윤씨의 유서는 동성애자로서 당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한 동성애자의 애끓는 절규를 담고 있다. 윤씨는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라며 동성애자들을 죄악시키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윤씨는 또 ‘죽은 뒤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 받지도 않아요.’라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 놓고 있다.

나아가 윤씨는 자신이 속한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선배들에게 ‘형, 누나들의 수고가 다음 세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라며 동성

애자에 대한 차별 철폐에 계속 힘써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유서 내용에서 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회구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번 윤씨의 죽음에 단지 한 동성애자 개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차가운 편견과 멸시, 소외와 차별의 빙벽 속에 갇혀 있는 이 땅 동성애자들 모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더더욱 주목한다. 현재 동성애자들을 외로움과 고립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편견에 찬 시선과 구조의 폭력이 멈추지 않는 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될 동성애자들은 끊임 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멸시와 혐오의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 당하게 될 폭력과 차별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경우에도 가족들로 부터도 외면당하는 것이 우리 사회 동성애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더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비정상’, ‘죄악’으로 치부하는 편견에 부딪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더구나 우리는 간신히 험겨운 삶을 추스르고 있는 이들 동성애자들을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 자체와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사회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언론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죄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한두 번 이상씩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편견과 폭력이 낳은 결과에 다를 아니다.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적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윤씨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동성애자들, 죽음 이외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절망한 채 손목을 긋고 줄에 목을 매다는 동성애자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 더 이상 윤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회구했던 세상이 무엇이었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식’ 과 ‘사회적 통념’ 을 가장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행위는 동성애자들을 끊임 없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에 다를 아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거둬내고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반인권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만 다를 뿐, 우리의 형제자매요 이웃이요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3년 4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광주 NCC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성적소수자그룹,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강남갑 지구당, 민주노동당 중랑갑 지구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퀴어영화제조직위원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안산인권노동센터, 여성해방연대(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DPI,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가톨릭 젊은이들이 욱우당 형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 동성애자 천주교 형제의 죽음에 천주교 형제자매들이 조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토록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형제의 죽음 앞에 성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눈치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운동단체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바라보면서 저희 개인들의 이름으로라도 형제의 죽음 앞에 조문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지난 주 한 동성애자 천주교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로써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는 많은 동성애자 천주교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깊은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성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의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깊은 신앙심의 차이로 인해 방황하고 번민하다 목숨을 끊기까지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난과는 달리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간직하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번 욱우당 형제의 죽음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미소한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여야 할 교회가 지난 이천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여성과 성적소수자,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는 이들을 끌어안기는커녕 단죄하고 탄압하고 저주하고 축출함으로써 많은 사

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게 야만스러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주’라는 악마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의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는 욱우당 형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톨릭 인권, 평화 및 제 단체들이 용기를 내어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기구에 대해 용감히 맞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성준 사무엘, 진혜경 세실리아, 엄기호 미카엘, 원근호 바오로, 이민우 도미니꼬
정은정 아그네스, 신관식 아오스당, 최재훈 안토니오**

국제단체로부터 온 추모의 글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말을 육우당을 잃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근본주의 종교집단들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써, 우리 모두는 '죄인', '부도덕적', '반자연적', '비정상적'라는 이름으로 억압받는 것의 내적인 고통과 고문을 잘 이해하고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으며 믿음을 저버려야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받고 사랑받기 보다는 우리의 성적지향성과 성차에 의해서 단죄받기 때문입니다.

육우당의 자살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한국의 젊은 성적소수자들을 위해서 몇몇 초석이 될 만한 일을 달성한 이때에 이루어졌기에 더욱 더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개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더 이상 성적소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그 어떤 종교로부터도 탄압받거나 단죄되어 죽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하여 공포와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고문들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믿음을 선택하고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로 드립니다.

말루 마린 - 필리핀 레즈비언 애드보카시 아시아태평양양무지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친구들

저희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욕우당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동료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써 특별히 더욱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투쟁과 희망 그리고 용기의 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한국의 이반 운동과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삶은 이 잘 훈련되고 결의에 찬 활동가 - 전쟁에 반대할 때 다른 사회단체와 이반 운동과 연결되어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지지를 보냈던 한 젊은 동성애자 -의 수고에 의해서 더욱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예기치 못한 죽음은 성적 소수자 청소년들이 얼마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처하고 있는 차별과 낙인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매우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차와 성적 지향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과 일체의 사회적 낙인과 불관용에 대한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통하여 그를 영예롭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의에 대하여 공공연한 반대를 확실히 함으로써, 용기를 모으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적 연대로,

다니엘 리

프로그램 기획자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

고마운 분들

고승우 / 박정호 / 권미란 / 김수희 / 김정숙 / 김지혜 / 남웅 / 두영 / 땅콩
무명 / 문학관 / 변진옥 / 백승민 / 삶은희망 / 선혜인 / 성진 / 신성연이 / 엄
기호 / 여지연 / 영지 / 윤한기 / 이경 / 이경화 / 이광해 / 이나라 / 이은미 /
이지영 / 정아용 정한나 / 조정권 / 최윤진 / 현아

다함께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이반시티 /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 / 한
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기연(www.sallim)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